

장관급 방문 '미래 먹거리 릴레이' 건의

김관영 도지사, 산업부장관·중기부장관·경제부총리 릴레이 면담... 지역 주요 현안 정부 지원 요청 등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중앙부처 장관급을 잇달아 만나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릴레이 건의 활동을 펼쳤다.

최근, 국무총리를 포함한 여러 부처의 장관급 인사들이 연이어 전북을 방문하는 등 전북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김 지사의 활동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전북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예산 반영 등을 호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김 지사는 "새 정부 출범 초기는 국정동력이 강한 시기인 만큼 장관·차관 등 중앙부처의 주요 관계자들이 전북을 방문하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밀착 면담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의 절실함을 피력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10일, 김관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만나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지정,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발전사업 추진 지원, △서남권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신속 추가 지정을 건의했다.

특히, △원주 수소수용모빌리티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으며, △특수목적선 MRO 특화단지 구축 등 지역 산업 육성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11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를 위한 임실군, 기화재정부, 국민연금공단 자매결연 협약식에 구윤철 부총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심민 임실군수가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9월 11일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모 선정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같은 날,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주요 정부안에 미반영된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국회단계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도의 입장을 전달했다.

주요 국가예산 사업으로는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전북권

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등을 건의했으며,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중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특히, 오는 10월 △원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예타 통과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관영 지사는 "새 정부의 국정동력이 강한 초기에 중앙부처와 밀착 협력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릴레이 면담을 통해 전북의 절박한 현안을 직접 전달하고, 국가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단계별 심사 과정에서 지역 정지권과 긴밀히 공조하고,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국가 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 등 총력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도외 유망기업 유치 박차

전주서 '벤처투자 라운드' 성료... 도외 유망기업 10개사 초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수도권 등 도외 유망기업을 전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무대를 마련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11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2025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도외 유망기업 유치 라운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정책출자기관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해 열린 교류가 이어졌다.

이번 라운드는 단순한 투자 피칭 자리를 넘어, 유망기업의 투자·이전·성장까지 연계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기획됐다. 운용사 및 창업기관협의회가 추천한 기술력·시장성·성장성을 인정받은 10개 기업이 IR 무대에 올라 투자사와 직접 소통하고, 전북 기업유치 정책을 안내받는 시간을 가졌다.

IR 무대에는 △비대면 시승 플랫폼 '라이드' △디지털 X선 기반 차매 치

료 '레디큐어' △화장품용 펩타이드 제조 '비제이아이' △무인기계계 AI 솔루션 '소프트다이내믹스' △나트륨 이차전지 기업 '씨아이피에너지' △향체 신약 개발 '아테노바이오' △스펠라스틱 열분해 시스템 '에코토르에너지' △그린인프라 DX 솔루션 '카탈로닉스' △세포 배양육 '팜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하이드로젠버터플라이' 등 에너지 신산업·바이오·기후테크 분야 혁신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행사에 이어 △10월 도내기업 밸류업 라운드 △11월 한국산업은행 연계 라운드 △12월 통합 컨소시엄 라운드를 차례로 열어 '전북 벤처투자 라운드 SCALE-UP' 시리즈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업 성장 플랫폼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국민연금공단, '한부모가족 전형' 도입

43명 공개 채용... 24일까지 접수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 최초로 '한부모가족 별도 전형'을 도입하며 사회적 책임 강화에 나선다.

공단은 2025년 하반기 신입직원 43명을 공개 채용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명을 사회적책임 전형으로 선발한다.

이번 채용은 사무직 32명, 심사직 11명으로 구성되며, 특히 △한부모가족 3명 △자립준비청년 4명 △취업지원대상자 18명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별도 전형이 눈에 띈다. 지난해 한부모가족 전형이 최초로 도입된 자립준비청년 전형에 이어, 올해는 한부모가족 전형을 신설하며 사회적 약

자를 위한 취업 기회를 넓힌다.

한부모가족 전형은 '한부모가족지원 사회적책임 전형' 외에도 일반전형으로 사무직 7명, 심사직 11명을 모집한다. 사무직은 별도 자격 제한이 없고, 심사직은 간호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작업치료사 등 전문 면허와 1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 합격자는 3개월 시보기간 후 정규직으로 임용되며, 전국 지사와 센터를 순환 근무하게 된다.

이달 10일 오후 3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공단 누리집(www.nps.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11월 1일, 면접은 11월 17~18일, 최종 합격자는 11월 28일 발표된다. 임용일은 12월 8일이다. /오상근 기자

완주군,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거점도시로 '첫 걸음'

완주군이 11일 완주테크노밸리2산단에서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윤수봉 전북도의회 의원, 권현철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과장을 비롯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현대차 전주공장, 지역대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 건립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센터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 기반구축 공모사업으로, 지난 2024년 7월 최종 선정됐다.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완주테크노밸리 2산단 내에 조성된다.

주관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

테크노밸리2산단에 시험·인증센터 기공식... 2028년까지 건립 예정



11일 완주테크노밸리2산단에서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센터' 기공식이 열렸다.

원(KTR)이며, 센터는 △폐연료전지 한 실증평가 △국내외 표준 마련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제품에 대

기업 지원 등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

원순환을 위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2018년부터 보급된 수소차가 2026년 이후 본격적으로 폐차되면 대량의 폐연료전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센터는 선제적인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수소경제 시대에 대응할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가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의 중심지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센터 건립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도, '2025 글로벌 동물헬스케어 포럼' 개최

17~18일 익산시... 글로벌 동물헬스케어 산업 선도 방안 모색

전북자치도와 익산시,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공동으로 글로벌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 포럼을 연다.

도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여하는 '2025 글로벌 동물헬스케어 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가 시험실시기관 3개 분야 인증을 획득하고,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성과가 본격화되는 시

점에 열려 의미가 크다.

전북자치도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총 1,150억 원을 투입해 익산을 중심으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며, 이번 인증으로 국내최고 수준의 시험·평가 역량을 확보했다.

'국내 동물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통합, 전략과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주요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강연, 토론,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진행한다. /이만호 기자

도, '방목생태축산농장' 신규 지정... 진안 데미샘꿈그린 선정

진안군 데미샘꿈그린, 내년 사업비 1억원 확보... 산양·한우 방목으로 지속가능 축산 실현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심사에서 진안군 데미샘꿈그린 농장(대표 황양우)이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자치도는 전

국 59개소 가운데 4개소의 방목생태축산농장을 운영하게 됐다.

데미샘꿈그린 농장은 진안군 백운면 입야와 초지 약 1만평에서 산양 130두와 한우 13두를 방목 사용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2026년 사업비 1억원(기금 5,000만원, 시군비 2,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을 지원받아 울타리 설치와 초지 조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유휴

산지·농지 등을 초지로 활용해 가축을 방목 사용하는 방식으로, 친환경·동물복지 축산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모델 확산을 목표로 한다.

도는 이번 신규 지정을 계기로 방목생태축산농장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정 농장에는 현관 설치와 보조금 지원은 물론 기술 지도와 사후 관리도 이어진다. /이만호 기자·진안=유태만 기자

제7회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도내 접수 창구 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제7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이 오는 12월 6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내년 8월까지 진행된다. 응시원서는 이달 26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전북에서는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이 접수 창구 역할을 맡아 도내 농업인들의 응시를 지원한다. 시험 대비 특강 등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도 운영해 수험생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응시 자격은 1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보유했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 수준을 인정받은 농업인으로, 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시험 희망 지역 농업마이스터대학을 통해 방문, 우편, 이메일 방식으로 가능하다.

농업마이스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 농업경영인으로, 경영 능력과 기술력을 물론 교육·컨설팅 역량까지 갖춘 농업분야의 장인을 뜻한다. 지정 이후에는

후배 농업인, 청년·여성농업인 등에 계영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제7회 시험은 1차 필기시험(12월 6일), 2차 역량평가(2026년 2~3월), 3차 현장실사(2026년 6~8월) 순으로 치러진다. 응시 자격은 1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 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으로, 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전북에서는 총 30명의 농업마이스터가 지정돼 활동 중이며, 이들은 수박, 토마토, 친환경채소, 한우, 딸기, 블루베리 등 다양한 품목에서 후배 농업인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김홍표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역량과 의지를 갖춘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필기시험 대비 특강을 마련하는 등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1면에 이어...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본격

현재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디지털 혁신협의체 산하 7개 전문 분과를 중심으로 기업, 기관,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주력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AI 접목 방안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전북에 이미 자리 잡은 빅데이터 플랫폼 5곳, 데이터 안심구역 등 10곳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향후 공공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및 SK 데이터센터 유치, 정보보호 로블러스터 조성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를 한층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의 전통적인 주력 산업군과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전반에도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하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농생명 분야는 2028년까지 총 1,800

억 원 규모의 'AI 기반 농생명 3대 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 농생명 모델 구현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식품 제조, 원격 자율 작업, 자율주행, 농작업 실증 등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제조공정 피지컬 AI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국비 229억 원 등)을 통해 협업 지능 피지컬 AI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이차전지 기업의 제조공정 현안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하는 지역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27억 원)도 추진 중이다.

홀로그램 산업은 익산을 거점으로 2026년까지 총 937억 원을 투입, 핵심 기술 개발과 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

을 넘어 사업화 실증 및 시제품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공모에 적극 대응하며 기존 홀로그램 산업의 외연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양자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북대학교와 한솔케미칼 컨소시엄은 국가 첫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사업(28억 원)을 통해 에너지 하베스팅 원리를 실증하는 패거리를 이루었다.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의 핵심인 인재 양성에도 전북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생, 재직자, 일반인을 아우르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IT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며,

특히 올 하반기에는 IT 취업 희망자를 위한 디지털 최고위 전문교육 과정(3억 원)을 신규 개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국장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 "AI와 데이터는 산업과 사회를 재편할 핵심 동력"이라며,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인재 양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전북형 신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처럼 AI와 디지털 기술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 스마트농생명 및 AI 기반 모빌리티 공정 최적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며 매년 수천 명의 IT 전문 인재를 양성, 미래 산업 기반을 견고히 다져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